



# 잇단 전어축제 '행복한 9월'

전남 동부 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전어의 계절을 맞아 광양시와 보성군이 일제히 전어축제를 연다.

전국 최초로 시작돼 전어를 주제로 축제를 열고 있는 광양시는 5일 "제14회 섬진강 전어 문화축제를 6일부터 8일까지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어만이 아니라 섬진강 인근 역사·문화자원을 엮어내 섬진강 전어 문화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첫날인 6일 오후 7시 섬진강을 배경으로 망덕포구 무대에서 통기타 가수, 청소년 브레이크댄스, 초대가수 등 축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축제의

광양 6~8일 망덕포구... 보성 13~15일 회천면

노래자랑·전어잡이 체험·시식회 등 행사 다채

시작을 연다.

7일은 전어 잡이 노래시연, 광양 민속 예술단 공연, '윤동주 세상밖으로'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오후 7시 개막식이 열린다.

이어 전어 가요제 예선과 태진아, 아이니가 출연하는 헬로TV 가요 쇼가 열린다. 마지막날인 8일은 맨손 전어잡기 및 먹기 대회, 남녀 팔씨름 대회, 금호동민 모듬북 공연, 민민 노인 실버 댄스, 전어가요제 결선과 불꽃

쇼로 마무리되는 폐막식이 열린다.

또 축제장 곳곳에서 사진 전시회, 임진왜란 관육선 자료 전시회, 전어 탁본 천연 비누 만들기, 섬진강 사랑망덕포구 건강 걷기 대회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보성전어축제가 오는 13일부터 3일간 보성군 회천면 해수물장과 솔밭해변 일원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어와 꼬막 잡기 체험, 전어구

이 체험 및 전어요리 시식회 등 체험 행사와 축하공연, 관광객 어울 마당,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등이다.

특히 울포 해수물장에 전어를 풀어 놓고 참가자들이 직접 잡은 전어를 즉석에서 회와 구이로 맛 볼 수 있는 전어잡기 체험과 전어요리 시식, 꼬막잡기 체험은 보성전어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청정 특량만으로 잡히는 보성 전어는 고소하고 비린내가 없는데다 약간의 단맛까지 있어 양념을 하지 않고 회로 먹어도 맛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 '청산도 작가의 집' 첫 이용 작가 안승완 화백

지난 7월 문을 연 완도 '청산도 작가의 집' 첫 번째 이용 작가로 안승완 화백이 이름을 올렸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안 화백은 지난 3일부터 2박 3일간 작가의 집에 머물며 청산도 자연을 화폭에 담았다.

〈사진〉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안 화백은 빛이 주는 색의 변화를 포착하는 작품을 추구한다.

지난달 15일 현대사생회 회원들과 청산도 사생대회에도 참가한 안 화백은 "문화예술인에게 무료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곳은 완도가 유일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작가의 집은 '슬로시티' 청산도를 배경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

예술인에게 작품구상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배추 모종 심는 아낙네 손길 분주

5일 해남군 화원면 월산마을 앞 들녘에서 배추 모종을 옮겨 심는 아낙네의 손길이 분주하다.

올 겨울 김장을 책임질 배추 가을배추는 이달 중순까지 모종 심기를 마무리한다. 올 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1365ha, 겨울배추 2795ha 등 모두 4160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은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해남군 제공>

## 인문학강좌, 지역민 '지혜의 샘' 자리매김

### 전남도립도서관 하반기 14개 강좌 스타트

전남도민의 '지혜의 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전남도립도서관 '인문학강좌'가 5일 박준영 전남지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14개 강좌에 들어갔다.

인문학강좌는 지난 5월 개설 이후 매주 목요일 상시 운영되고 있다. 전반기에 14개 강좌를 펼쳐 목포권은 물론 해남, 함평, 광주지역에서도 수강생들이 찾아오는 등 3000여명이 참여해 지역민들의 인문학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후반기 인문학강좌는 지역에 연고를 둔 우수 강사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삶의 지혜를 찾다(5개 강좌) ▲지금 현재에서 고전을 말하다(4개) ▲역사 문

화 속에서 인문학을 배운다(4개)라는 3개 주제로 14개 강좌를 구성해 12월 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한다.

후반기 첫 강좌로 진행된 이날 제15회 지혜의 샘 인문학강좌는 1부 여성 책갈피 행사에서 전남스트림파크 넷 현악 4중주 공연이 열려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인문학강좌에선 박준영 전남지사가 '흔한 공동체로 미래를 대비하자'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 지사는 "가정에서부터 마을, 읍면, 시군, 도, 호남에 이르기까지 갈등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찾아서로 도우면서 잘 되는 공동체를 이루자"고 당부한 후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으로 꿈을 꾸지 않으면 이뤄

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수강생 박경서씨는 "삶의 지혜를 충전하는 좋은 기회여서 매우 동료들과 함께 듣고 있다"며 "흔한 지역 공동체 정신은 다름 아닌 가정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립도서관은 인문학강좌 우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다산 정약용 유배지 인문학 탐방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jeonnam.go.kr>)에 신청하거나 도서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회원은 매주 2회 강좌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영암 상호지역 4대 사회악 근절 적극 나선다

### 현대삼호중-전남경찰 치안 업무협약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이 4일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경찰과 '4대 사회악 근절 등 협력 치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석중 전남경찰청장장과 하경진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양측은 합동 순찰 및 범죄예방 간담회 실시, 산업현장 안전사고

대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유지, 가로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치안 인프라 구축,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각종 캠페인 활동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영암 상호지역은 지난 1992년 현대삼호중공업이 입주하면서 조선산업이 크게 성장했으나, 외부인 진입이 늘면서 고성방가, 공공기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사고 등 각종 민

원과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대삼호중공업은 회사 인근 지역에서 지속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왔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치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회사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각종 사건사고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교통사고 예방 강연

### 보성경찰서

보성경찰서(서장 김영근)는 지난 4일 보성향교 충효회관에서 생활과 밀접한 교통사고예방 및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김영근 서장은 유도대학을 찾은 100여명의 어르신들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습관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및 여성 운전자에 대한 배려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 재연

### 내일 여수 이순신광장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이 여수에서 재연된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을 7일 전라좌수영 본영이던 진남관이 위치한 여수 중앙동 이순신 광장에서 연다.

출정식을 위해 수군과 취타대로 출

연하는 시립국악단원과 안무전문가 등 70여명이 연일 이순신 광장 등에서 연습중이다. <사진>

수군출정식은 1592년 임진년 5월 4일 전라좌수영 함대의 첫 출전에 앞서 승전을 기원하기 위한 의식으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5~10월 사이 2차례씩 이 행사를 치러 왔다.

출정식은 1591년(선조 24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여수에 부임한 이충무공이 이듬해 4월 임란이 터지자 전라좌수영 관하 5관(순천도호부·낙안군·보성군·광양현·흥양현) 5포(방갑진·사도진·여도진·발포진·녹도진)의 수군과 전선을 여수에 집결시켜 전라좌수영 함대를 편성하고 연전연승을 거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김철희기자 chkim@

# 종북세력 발본색원하고, 종북본산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하라!

| 규탄일시 | 2013. 9. 6(금) 오후 4시 | 장 소 |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앞

**첫째** 북한 남침시 무기고 습격, 통신·철도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이석기 일당의 망동은 종북·이적·간첩행위의 실체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셋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세력의 본산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하라.

**둘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석기 일당을 모조리 잡아들여 엄중처단하라.

**넷째** 우리 모두는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암약하는 종북·이적세력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안보의식을 강화하자.

## 광주·전남보훈단체 일동